

우량주를 잡아라

朴鍾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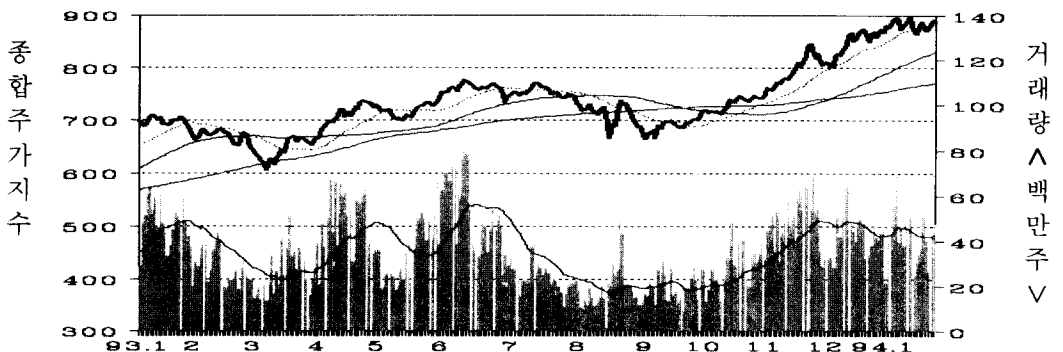
우량주(Blue-chips) 중심의 상승 지속

증시와 정부의 역할

'94년 새해의 우리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권리락을 회복하는 힘찬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가지수 900 포인트를 위협하였다. 물론 1월 증시 상승의 주도주는 지난 연말과 같이 자산주 및 우량주 일색이었다. 한때 종합주가지수가 900 포인트를 돌파하자 정부는 증시의 과열 현상을 염려하여 증안기금의 보유 주식 처분과 함께 투신사의 국고자금 상환을 요구하는 등 증시에 개입함으로써 또다시 증시의 자율성을 해치는 후진적 행정을 보였다. 따라서 월 중반 이후 증시는 주가지수 900 포인트를 강한 저항선으로 하고 860 포인트를 지지선으로 하는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재료가 뒷받침되는 우량주와 자산주는 지수와 관계 없이 상승 행진을 계속함으로써 강세장으로서의 면목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최근 우리 증시를 과열로 판단하고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증안기금의 보유 주식 중 최근 급등한 일부 종목의 매도를 유도하고, 기관투자자에게 주식 매입을 위한 위탁증거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등 과거의 권위적, 규제적 행정을 재현하였다. 이에 따라 고가주는 더욱 상승하고, 저가주는 오히려 하락하는 주가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자본주의 꽃이라고도 하는 주식시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여 완전 경쟁 매매를 하는 가장 자율적인 시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될 수 있는한 개입을 자제하고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자본주의 경제 원칙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는 사람을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 책임연구원, 외국어대 경영학 석사, 금융 전공

조정은 있어도 하락은 없다.

2월의 증시는 지수상으로는 간헐적인 조정을 보이기도 하겠지만 우량주를 중심으로한 견조한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모든 우량주가 동시에 상승하기 보다는 우량주 내부에서도 순환매를 통한 단계적 상승이 예상된다. 이같이 우량주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최근의 우리 증시가 질적으로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점과 기관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과거 우리 증시는 인기주 및 인기업종에 따른 뇌동매매로 주가가 동반 상승 또는 동반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기업의 내재가치와 향후 성장성을 중시함에 따라 동일 업종내에서도 주가가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증시 개방에 따른 외국인 투자 확대와 함께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기관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량주 중심의 증시 패턴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미국의 경우에서 보면 기관화 현상이 급속히 일어나던 '60년대에 소위 "Nifty Fifty"주라고 하는 50개의 우량주만이 수년에 걸쳐 큰 폭의 상승을 해 왔던 것을 기억할 수 있다. 또한 일본에 있어서도 '70년대 일본 증시의 확대와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초우량주가 주도주로서 등장했던 것을 알고 있다. 이와 같이 볼때 최근 우리 증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산주 및 우량주 중심의 장세 패턴은 현재 우리 증시의 기관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연이 아닌 것이다.

자산주와 우량주가 기본

2월의 포트폴리오도 기본은 최근 주식시장 상승세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산주와 우량주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종목은 주가지수와 관계없이 일반 및 기관 투자자들에게 가장 좋은 투자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외국인 투자자들도 위탁증거금 납입 의무화 이후 매도우위를 견지하고 있지만 매도종목은 주로 저가주에 한정되고 있으며, 우량주에 대한 장외 프리미엄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형편이다. 앞으로 외국인에 대한 주식 보유 한도를 점차 확대한다고 볼때 국내 기관투자자의 이들 우량주에 대한 매수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주 및 우량주 등 개별 주식외에 관심을 가져볼만한 종목은 바로 증권주 및 일부 실적이 양호한 저가주이다. 금년 3월말로 결산이 끝나는 증권주의 경우 지난 1여년간 우리 증시의 거래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증시 또한 급속한 회복으로 증권사 보유 주식 평가 이익 및 채권 수익률 하락에 따른 채권 운용 이익 등으로 영업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증권업을 대표하는 대형 증권주외에도 중소형 증권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이외에도 최근 주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일부 저가주 중에서는 향후 성장성면에서나 최근 기업 실적면에서 매우 우수한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실적 우량종목을 미리 발굴하여 선취매 해 두는 것은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